
韓國婦人의 再生産力 分析

李 時 伯*

合計出産率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 부인의 出産力은 선진국가의 低出産力水準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따라 그동안 변화되어온 人口政策이 과연 향후 出産力수준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人口政策의 方向을 결정하는 重要지표로 사용되어온 出産率을 좀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再生産力을 검토함으로써 出産力水準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의 결과로서 최근에 이르러 비록 合計出産率은 1987~1990년 사이에 변동없이 1.6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配偶出産率에 있어서는 약 17퍼센트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있어 25~39세 女性의 出産率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늦둥이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여년간 동안 GRR와 NRR의 변동상황을 보면 GRR이 1970년에 2,221에서 1980년에 1,245 그리고 1990년에는 707로 하강하였다. 그리고 NRR은 1970년에 1,885에서 1980년에 1,160, 그리고 1990년에 686으로 각각 하강했다. 그러나 安定自然增加率은 1971년에 0.3에서 1990년에는 0.25로, 세대기간은 같은 기간동안에 24.9년에서 25.8년으로 각각 큰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I. 서론

國家의 人口 및 家族計劃 政策의 效果는 일차적으로 出産力 變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서구라파 제국에서는 인구 또는 家族計劃에 관한 國家의 뚜렷한 政策없이도 出産力이 下降

해 온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Petersen, 1964 : Mckeown, 1965) 그러나 이것은 産業革命이후 生産性的의 向上과 이로 인한 死亡力 특히, 영아사망율의 저하와, 여성의 教育向上 및 經濟社會活動 參與 등 전반적인 社會文化 發展의 影響力으로 出産力이 하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의해 出産力이 저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本稿를 세심히 검토하여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남훈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하되고 또한 인구성장이 안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이후 開發途上國家에서는 개발에 의해 出産力 下降을 의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국가정책으로 出産力 低下를 촉진하고 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後者의 경우로 政府의 政策에 의해 出産力 低下에 강한 영향력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까지 TFR이 계속적으로 하강하다가 1987년 이후 1990년 조사시점까지 合計出産率이 1.6의 수준에서 停滯狀態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保健社會研究院, 1992). 合計出産率 1.6은 비록 低出産水準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난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도달한 저출산력인지라, 과연 이 低出産力이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한 少子女觀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준인지, 또는 그동안 강력한 政府의 出生억제 施策의 영향력에 의한 결과로 향후 政府의 施策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潛在力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判斷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社會文化的으로 완전한 少子女觀의 형성에 의해서 低出産力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국가 사회 정책여하에 따라 出産力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의 人口政策의 方向을 결정하는 重要指標로 사용되어온 出産率을 좀 더 深層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再生産力을 검토함으로써 정확한 出生력 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出産力 수준이 下降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1989년 이후 急轉한 우리나라 人口정책의 타당성도 다시 비 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I. 研究의 目的

그동안 西歐社會의 出産力 變遷過程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단히 짧은 기간동안에 低出産水準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出産 行態 또한 이론에 앞서 그 변화속도도 빠른 특징을 가진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理論적으로 볼 때 出産力을 나타내는 出生행태는 사회문화적인 變動의 小산물로서 장기적으로 社會文化的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政府의 주도적인 出産抑制 社會運動이 오늘날의 低出産水準으로 유도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고, 그 변화과정도 또한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低出産力이 社會文化的인 변동에 의해 안정된 出生행태의 구조적 변화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론적으로 취약점이 많다는 주장이다(李, 1993). 만약 現在의 低出産力이 짧은 기간동안에 형성된 불안정한 出産力 構造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出産力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豫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出産 行態 변화와 관련하여 出産力의 構造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再生産力을 豫測하는데 一般的인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부인의 出産行態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人口政策의 方向을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設定한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最近의 年齡別 特殊出産率과 年齡別 配偶出産率의 구조적 변동상황을 測定한다.

둘째, 總再生産率과 純再生産率을 分析 測定한다.

셋째, 純粹 自然增加率 및 世代期間의 변화를 측정한다.

III. 研究資料 및 方法

本 研究에 이용된 資料는 家族計劃研究院, 韓國人口保健研究院 그리고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1970년 이후 1991년까지 정기적으로 蒐集한 全國 出產力 調查結果의 資料다. 그리고 統計廳이 集計하여 發刊한 各 년도별 人口動態 統計 資料를 各 各 利用하였다.

資料分析은 既存 資料에서 얻은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배출출산율을 이용하여 各 年度別 出產率의 變化를 시계열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出產力 水準 變動을 把握하였다. 그리고 一般의 出產力 變動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正確한 指標로서 向後 人口成長을 豫測할 수 있는 總再生產率과 純再生產率을 測定하였다. 이때 男女 出產兒數를 보다 精確하게 適用시키기 爲하여 년도별 人口增減 통계 집계결과에 따라 年度別 性比를 計算하여 이를 代入시켰다. 그리고 世代期間의 測定은 各 年齡 女兒出生率을 精確하게 알지 못하는 狀態에서 보다 精確하게 계산하기 爲하여, 이미 계산된 純再生產率로 부터 장래 人口成長期間을 먼저 計算하고 이것을 純粹自然 增加率에 대입하여 求하였다.

IV. 分析結果

1. 最近의 合計出產率과 配偶出產率의 구조적 變動

1987~1990년 양 年度의 合計출산율은 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수준에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最近의 出產力 水準은 安定된 低出產水準에 접근하고 있다고 滿足하고 있다(洪文植外, 1993). 즉, 이 수준은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의 變化를 나타낸 것은 아닐지라도 양 年도의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測定된 出產力이 다

같이 1.6으로 先進國水準에 비교됨으로서 低出產水準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TFR 1.6은 出產力代置水準 이하로서 결국 먼 훗날에 人口가 減少할 수 있는 罫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出產力 上昇을 유도하는 新人口政策의 개발을 間接적으로 強調하고 있는 主張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出產力 수준을 비록 出產力 代置 수준이하에 있다고 하여 장래 人口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는 罫려는 기우이며 人口變動이 出產力水準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出產力에 影響을 줄 수 있는 結婚年齡, 出產 間격, 性比等의 要因과 전반적인 死亡力에 依해 결정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전격적인 變化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人口는 그 時代와 그 社會의 狀況에 따라 出產力과 死亡力이 力動的으로 變化하여 나타난 少産물이기 때문에 國家의 目標에 따라 다시 計劃되고 調整될 수 있다. 그래서 出產力 代置이하의 TFR로서 將來 人口의 減少를 必然적인 現狀으로 豫測하여 과민한 反應을 보일만큼 罫려할 필요는 없다. 보다 重要한 것은 出產力 構造의 安全性을 먼저 檢討해야할 것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년도의 TFR은 1.6으로 同一水準에 머물고 있으나 ASFR을 보면 安定된 狀態에 있지 않다는 事實을 알게 한다. 즉, 양 년도사이에서 年齡別 出產率이 20~24세와 40~44세의 두 年齡群을 제외한 나머지 全年齡群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그동안 他年齡群에 비해 가장 높은 出產力을 보이면서도 계속 ASFR이 하강해 왔던 25~29세 集團이 1988~1990년 사이에 12%, 그리고 斷產年齡 集團으로 간주되어 왔던 30~34세 집단에서는 무려 28%나 각각 크게 上昇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出產力 抑制 對象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던 35~39

세 集團도 17%나 역시 상승하고 있는 出産力의 構造的 不安定狀態를 볼 수 있다. 이것은 1988년 이후 樂觀的으로 傍觀해 왔던 우리나라 人口·家族計劃 정책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低出産 水準이 결코 社會文化的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事實을 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表 1> 最近의 年齡別 出産率 變動狀況

연 령	1987	1990	변동(%)
15~19	3	3	0.0
20~24	104	62	-40.4
25~29	168	188	+11.9
30~34	39	50	+28.2
35~39	6	7	+16.7
40~44	3	1	-66.7
45~49	-	-	-
TFR	1.6	1.6	0.0

다음, 出産力 水準 變動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配偶出産率 變動 분석결과를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最近의 配偶出産率 變動 狀況

연 령	1987	1990	변동(%)
20~24	271	306	+12.9
25~29	192	234	+21.9
30~34	41	53	+29.3
35~39	6	7	+16.7
40~44	4	1	-75.0
45~49	-	-	-
TFR	2.57	3.01	+17.1

資料：韓國保健社會研究院,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 健實態調查 1988, 1991.

전체 有配偶出産率은 1988~1989년 사이에 17%가 상승했다. TFR이 同期間 동안에 같은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配偶出

産率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TFR이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은 出産率 자체의 정체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TFR은 연령구조, 결혼상태, 결혼연령의 변동, 그리고 出産速度(터울조절)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TFR수준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TFR보다 정확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配偶出産率을 쓴다. 그래서 配偶出産率이 상승하였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자의 出産力이 올라갔다는 뜻으로 出産力 政策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配偶出産率 變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年齡別 配偶出産率의 수준 變動을 보면, 40세 이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年齡層에서 出産力이 상승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表 2> 참조). 그동안 出産力이 가장 활발했던 25~29세 集團의 年齡別 出産率은 1988~1990년 사이에 40%가 하강하였으나 年齡別 配偶出産率에 있어서는 반대로 22%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이 年齡階層에 속한 여자들의 出産數가 줄어 年齡別 出産率이 下降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이 연령에 속한 여자들의 結婚狀態나 人口構造上 인구 변동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年齡別 配偶出産率이 이 연령에서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年齡集團의 실질적인 出産力은上昇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年齡別 配偶出産率이 29% 그리고 17%가 각각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年齡集團의 年齡別 配偶出産率을 年齡別 出産率과 비교할 때 30~34세 集團에서는 ASFR상승과 비슷한 29%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35~39세 집단에서도 17%의 동일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과거 30세가 지나면 自動的으로 斷産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政策的으로 重要對象이 되지 못했던 이 年齡集團의 出産力이 實際的으로는 상승하고 있어 尙간의 이야기로 듣고 있던 「늦둥이」출산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TFR=1.6의 低出産水準을 나타내고 있지만 1988년 이후 等한시한 人口政策 때문에 실제적인 出産力은 상승하고 있다 하겠다.

2. 總再生産率(GRR)과 純再生産率(NRR) 水準

일반적으로 出産力 變動을 測定하는 目的에 서는 TFR/ASFR 그리고 TMFR/ASMFR로 評價하여도 거의 滿足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專門的인 分析目的에서는 GRR이나 NRR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指標는 總出生兒數를 基本資料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出生兒數 가운데 女兒數만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尙후 人口變動에 미치는 出産力 動向을 보다 正確히 측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男兒選好 思想이 강하고 이것이 곧 出産에까지 반영되어 심한 性比 不均衡을 초래하고 있어 尙來人口 變動을 보다 正確하게 判斷하는 의미에서도 總再生産率과 純再生産率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GRR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GRR = B'/B' \cdot \sum (B_i/P_i) \cdot k$$

또는,

$$GRR = 5 \cdot B'/B' \cdot \sum (B_i/P_i) \cdot k$$

로 구한다.

여기서, B'/B'는 총출생아수에 대한 여아 출생아수의 비율이며 B_i는 i연령의 女子에서 태어난 出生兒數, 그리고 P_i는 i연령의 女子數이다.

B'/B'는 年度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

$$1970 = 0.4762 \quad 1987 = 0.4630$$

$$1975 = 0.4673 \quad 1990 = 0.4545$$

$$1980 = 0.4630$$

를 각각 대입하였다.

그리고,

$$NRR = B'/B' \cdot \sum (B_i/P_i) \cdot (L_x^f/I_0^f)$$

또는

$$NRR = 5 \cdot B'/B' \cdot \sum F_i \cdot (sL_x^f/sI_0^f)$$

로 구한다.

이렇게 하여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기존의 調査資料를 이용하여 계산한 GRR과 NRR은 <表 3>과 같다.

<表 3> 年度別 GRR과 NRR의 水準變動

연 도	1970 ⁽¹⁾	1975 ⁽²⁾	1980 ⁽³⁾	1987 ⁽⁴⁾	1990 ⁽⁵⁾
GRR	2221.0	1500.5	1245.0	748.5	707.0
NRR	1885.6	1341.7	1160.1	718.7	685.7

註: 性比의 適用: (1)=105, (2)=107, (3)=108,

(4)=108, (5)=110을 각각 적용하였음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再生産率은 1970년의 2.2에서 1990년에는 0.71로 크게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純再生産率 역시 1970년의 1.9에서 1990년에는 0.69로 代置出産水準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總再生産率 水準變動의 특징은 年度別 TFR이 하강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하강해 온 점이다. 즉, 1970년의 4.4으로부터 1990년의 1.6까지 TFR은 63.6%가 떨어졌는데, 總再生産率은 이보다 높은 68.2%가 떨어졌다. 이것은 TFR과 GRR가 동일한 出産力 概念의 指標이면서도 상호 다른 下降速度의 수준차이를 보이는 것은 年度에 따라 出生性比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解析된다.

그래서 性比 不均衡이 出産에 미칠 수 있는 장래의 사회적 문제도 念慮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男兒가 女兒보다 많이 출생하는 것은 오히려 人口成長 鈍化의 潛在效果가 있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3. 純粹 또는 安定 自然增加率(True/Intrinsic Rate of Natural Increase)과 世代期間의 變化

人口成長에 주는 여러가지 영향력 가운데 특히 앞에서 살펴본 總再生産率과 純再生産率은 향후 人口成長을 예측하는 主要指標로 작용한다. 人口理論上 人口移動이 전연 없는 상태인 폐쇄인구가 年齡別 出産率과 死亡率이 장시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때의 理論的인 人口를 安定人口라 말한다. 그래서 이 安定人口에서는 각 연령층에 분포된 人口比率이 항상 변함없는 안정된 年齡分布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年齡層의 안정된 年齡分布와 그리고 出産力과 死亡力이 또한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된 인수로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고 理論的일 뿐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인구인 安定人口는 주어진 出産力과 死亡力 속에서 인구의 成長潛在力을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한다. 이때 인구의 成長潛在力을 측정하는데 적용되는 基本變數가 總再生産率과 純再生産率이다. 그리고 安定人口에서 주어진(고정) 出産力과 死亡力에 의해 구해진 人口增加率을 純粹自然增加率 또는 安定自然增加率이라 칭한다. 따라서 純粹 또는 安定自然增加率은 인구의 成長潛在力을 말한다.

人口成長의 潛在力을 말하는 純粹自然增加率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int_0^{\infty} e^{-rx} f(x) p(x) dx = 1 \text{ 이고, } \dots\dots\dots (1)$$

$$1/2\beta r^2 + \alpha - \log e R_0 = 0 \text{ 가 된다. } \dots\dots\dots (2)$$

여기서

$$\alpha = R_1/R_0$$

$$\beta = \alpha^2 - R_2/R_0 \text{ 이다.}$$

상기식 (2)에서,

$$r = \frac{(-\alpha + \sqrt{\alpha^2 - 2\beta \log e R_0})}{\beta}$$

로 유도되며,

∴ α와 β를 대입하면,

$$r = \frac{R_1/R_0 - \sqrt{(R_1/R_0)^2 - 2[R_2/R_0 - (R_1/R_0)^2] \log e R_0}}{R_2/R_0 - (R_1/R_0)^2}$$

가 된다.

이렇게 하여 계산한 純粹/安定 增加率은 <表 4>와 같다.

安定增加率의 變化를 보면 1971년의 0.30에서 1990년에 0.25로 20년 동안에 16.7%가 감소하였으며, 최근인 1987~1990년 사이에는 0.27에서 0.25로 줄어 7.4%가 감소하였다. 安定增加率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人口增加率과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 安定增加率이 0.25라고 하는 것은 다른 先進國과 비교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表 5>에서 알 수 있다.

<表 4> 純粹/安定 增加率과 世代期間의 變化

	1971	1976	1981	1987	1990
純粹/安定增加率	0.30	0.29	0.29	0.27	0.25
世代期間	24.93	24.69	24.28	24.64	25.81

다음, 人口變動의 動向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가 세대기간이다. 세대기간은 장래인구 변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女兒出生 이후 이 女兒가 몇년 후에 그의 어머니의 出産活動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하는 出産代置期間을 말한다. 이것은 딸이 출산한 다음 성장하여 다시 어머니로서 出産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을때 까지의 期間인데, 이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表 5> 各國의 純粹/安定增加率의 變化

國 家	安定增加率	人口自然增加率	國 家	安定增加率	人口自然增加率
韓 國	0.30(1971)	1.97*	프랑스	-0.38(1930~34)	0.16
	0.29(1976)	1.65*		0.99(1946~47)	0.71
	0.27(1987)	0.91*		-0.47(1976)	0.31
	0.25(1990)	0.95*		-0.45(1978)	0.36
美 國	-0.18(1935~39)	0.85	덴마크	-0.25(1930~34)	0.63
	2.11(1955~59)	1.59		0.87(1946~49)	1.02
	-0.52(1977)	0.69		-0.84(1978)	0.23
	-0.57(1978)	0.67		-0.97(1979)	0.16
日 本	1.63(1930~34)	-	대 만	3.3 (1955~59)	3.52
	-0.13(1955~59)	1.01		2.5 (1965~69)	2.52
	-0.55(1977)	0.93		0.89(1978)	2.06
			0.82(1979)	2.07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92

人口成長에 주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世代期間을 보면 <表 6>과 같다.

<表 6> 世代期間의 變化, 1971~1990
(單位: 年)

年	1971	1976	1981	1987	1990
世代期間	24.93	24.69	24.28	24.64	25.81

世代期間의 계산은 $NRR(R_0)$ 의變動에 의해 世代期間도 변화하는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R_0 = e^{rt} \dots\dots\dots (1)$$

로 가정하고,

$$t = 1/r \log e R_0 \dots\dots\dots (2)$$

로 유도한다.

다음, 安定增加率 分析에서,

$$1/2\beta^2 + \alpha - \log e R_0 = 0$$

$$\log e R_0 = 1/2\beta^2 + \alpha$$

이것을 식(2)에 대입하면,

$$t = \alpha + 1/2\beta^2$$

가 된다.

1971년 현재 24.9년에서 1987년의 24.6년까지 큰 변동없이 지나다가 1990년에 약간 올라간 25.8년을 보이고 있다. 이 世代期間이 길면 길수록 人口增加에 주는 영향력은 世代期間이 짧은 경우보다 적다. 그래서 世代期間을 가능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① 出生間隔을 신장시키는 方法, ② 女子의 結婚年齡을 상승시키는 方法 또는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出産을 늦게하는 方法, ③ 出産力을 떨어지게 하는 方法, ④ 그리고 가능한 젊은 어머니들의 出産을 抑制하는 方法 등의 社會 政策的인 方法들이 考慮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出産力은 크게 下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世代期間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出生속도(터울)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研究報告(姜英子, 1981: 李時伯, 1987)로 미루어 볼 때, 이로 인한 相殺效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世代期間이 짧은 他先進國家로서는 美國을 들 수 있는데, 美國은 서구라과 제국과 같이 대단히 낮은 出産力을 보이면서도 世代期間이 또한 대단히 짧아 그만큼 人口增加를 촉

진하고 있다. 이것은 美國이 서구라과 제국과는 달리, 젊은 女性들의 出産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低出産力 水準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비단 적게 낳는 통속적인 出産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母子保健 側面에서 적당한 母性年齡에서 출산을 시작하고 두번째 출산의 경우는 충분한 터울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V. 結 論

바람직한 國家發展은 經濟開發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社會 開發水準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바람직한 國家發展을 위하여, 새로 출발한 政府가 주창하고 있는 新韓國 創造는 우선 국가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社會問題는 사실상 人口問題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人口問題는 國家發展의 基本與件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의 인구 및 出産力 動向을 정확히 判斷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政策對應을 강구해야 할 必要性에 따라 再生産力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開發해야 할 政策的 意味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각 부분에 대한 分析結果와 政策的 意味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자 한다.

최근에 확인된 TFR=1.6의 低出産力 水準에도 불구하고 高出産年齡層으로 인정되어온 30세 이상 집단에서 出産이 上昇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별 출산율이 20~24세와 40~44세 두 年齡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연령군에서 모두 上昇하고 있다. 25~29세 집단이 12퍼센트, 30~34세 집단에서 28퍼센트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斷産年齡 集團으로 간주해온 연령에서 「늦둥이」출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配偶出産

率이 전체적으로 17퍼센트 그리고 40~44세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1988년 이후 등한시한 人口政策 때문에 「늦둥이」현상과 함께 실제적인 出産力의 잠재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判明되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再生産力은 그동안 下降한 出産力 速度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非正常的인 性比不均衡 出産의 영향에도 다소 관계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人口增加의 潛在力을 알 수 있는 安定自然增加率은 先進國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높은 水準에 있어 올바른 人口政策의 方向定立이 要求된다. 특히 人口增加에 獨立的인 影響力을 주는 世代期間은 1970년대 이후 20여년간 동안 큰 변화없이 약 1세 정도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出産力이 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世代期間의 변동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부인들의 出産速度(터울, 출산연령)가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低出産狀態에서 母子保健을 向上시킨다는 目的으로서는 出産速度는 완만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연구된 한국부인의 再生産力의 분석결과를 두고 볼 때, 그동안 出産力構造의 취약점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 현저하게 떨어진 合計出産率의 수준에만 만족하여 人口政策의 方向 전환과 함께 오히려 低出産수준에 대비한 일부 선진국의 출산장려 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산 연령 집단으로 이해되어 왔던 30세 이상 연령군의 出産力 上昇과 配偶出産率이 전 연령군에서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들을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姜英子·崔炳睦, 출산간격의 분석, 家族計劃研究院, 1981.
- 經濟企劃院 統計局, 1985年 人口 및 住宅 센서 스 報告, 1987.
- 經濟企劃院 統計局/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87~1992.
- 經濟企劃院 統計局, 最近 人口動態 現況 및 新 人口推計結果, 1988. 11.
- 李時伯, “間接方法에 의한 地域別 出産力 水準 推定”, 保健社會論集, 12(1), 1992. 7.
- 李時伯, “韓國 婦人의 出産間隔에 대한 分析”, 最近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5.
- 李時伯, “'90年代 人口政策의 方向과 妥當性”, 政府家族計劃事業評價,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李時伯, “最近의 人口 出産力 動向과 國家社會 發展”, 保健學論集, 13(1), 14~25, 1993.
- 人口部門計劃委員會,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 年 計劃, 人口部門計劃(案), 1986. 3.
- 統計廳, '90人口住宅 總調查 結果, 1991. 4
- 統計廳, 1990 人口住宅 總調查 最終全數推計 結果, 1992. 12.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9.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産行態, 1991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查 報告書, 1992.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9.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92.
- 洪文植, 低出産 國家의 人口政策, 韓國保健社會 研究院, 1993.
- McKeown, T. *Medicine and World Population*, M. Scheps and J. Ridley(Ed)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Chang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5, pp. 25~40.
- Petersen, W. *The Population of Europe*, in. R. Freedman(Ed), *Population and Vital Revolution*. Anchor Books, N. Y. 1964, pp. 256~267.
- The Commission on Poulation Growth and American Future, *Population and American Future*, 1972.
-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Vol. I, II, III, 1981.

<Summary>

An Aanalysis of Korean Women's Reproductivities

Sea-Baick Lee*

An analysis of reproductivity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measurement of net force of fertility expressed in terms of a generation rather than in a given year. The present study examined current trends of Korean Women's reproductivity interpreting general reproduction and net reproduction rates, intrinsic rate of natural increase and mean length of generation.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fertility surveys from 1970 through 1990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The figures of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the reproduction rates of Korea during the last 20 years decreased from 2.22 in 1970 to 0.71 in 1990 and

net reproduction rates also dropped from 1.9 to 0.69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Furthermore, from this study, it is noticed that the 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 had been reached since the early 1980's. The intrinsic rate of natural increase as measure of population growth under existing conditions of fertility and mortality and free of the influence of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is computed. The level of rate was not much changed and was 0.3 in 1970 compared with 0.25 in 1990, which is still higher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mean age of mother at the birth of their daughters defined as the length of generation has been slightly changed from 23.9 in 1971 to 25.8 in 1990.

*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